

조선3사, 세계 LNG선 수주 싸움이

삼성-현대, ExxonMobil 2단계 프로젝트 낙찰유력 ... 경쟁기업 첫 연대

세계 최대규모의 LNG선 수주전으로 주목을 끌어난 ExxonMobil 프로젝트와 관련해 1차에 이어 2차 입찰에서도 국내 조선기업 빅(Big)3가 수주를 휩쓸 전망이다.

특히, 수주전에서 대우조선해양과 함께 입찰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컨소시엄은 해외입찰로는 국내 조선기업간 첫 연대 사례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선박·해운 전문지 Trade Winds 등에 따르면, 20만입방미터(m³)급 LNG선 20척(확정분 8척+옵션 12척)을 발주하는 엑손모빌 2단계(카타르가스 II) 프로젝트 중 16척에 대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컨소시엄이 각각 8척(확정분 4척+옵션 4척)씩 수주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4척에 대한 발주도 추후 진행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주가격은 평균 2억1500만달러를 호가할 것으로 관측되며 최종 발표는 10월로 예정돼 있다.

과거 대우조선과 한진중공업이 손잡고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선 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한 적은 있었으나 경쟁관계의 국내 조선 빅3가 해외 입찰에서 컨소시엄을 형성해 공조하는 적과의 동침 사례는 처음이자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저가 수주경쟁 방지 및 납기단축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해 손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 절반씩 나누어 선박을 건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엑손모빌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오일 메이저인 엑손모빌과 카타르 국영석유기업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양사간 합작법인인 라스가스II는 2004년 7월 말 14만5000m³급 LNG선 8척에 대한 입찰을 이미 마무리했으며 역시 양사 합작법인인 카타르가스II가 2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건조된 LNG선 중 가장 큰 규모는 14만5700m³급이었다. 1척당 약 1억7000만달러에 낙찰된 1차 수주전에서도 전체 8척 중 대우조선이 7척을, 삼성중공업이 1척을 수주하는 등 국내 조선소가 압승을 거둔 바 있다.

1,2차를 합하면 프로젝트의 총 수주예상금액은 무려 53억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특히, 2차 프로젝트인 카타르가스II는 규모나 금액면에서 1차를 크게 능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여서 기업간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됐었다.

현대중공업은 1차 프로젝트에는 아예 참여하지 않은 채 LNG 생산능력 확충 작업을 벌이며 2차 프로젝트에 대한 올인 전략을 구사했고 대우조선도 LNG선 분야의 충분한 건조 경험을 내세워 자신감을 표명해왔다.

더욱이 카타르가스II는 2004년 말 24만m³급 초대형 LNG선 12척도 추가로 발주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조선기업간 뜨거운 수주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살바싸움이 치열한 경쟁기업간 컨소시엄으로 앞으로 국내 조선기업간 상생이 활성화될지도 주목된다.

<화학저널 2004/09/14>